



우리 모두 노인관을 바꾸자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오 세 직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85세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의학과 생명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노화의 비밀을 밝혀 내거나 인간 생체의 복제나 장기 이식 등을 사용한다면 인간의 수명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이 청·장년의 인구 비율과 맞먹거나 넘어서는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이나 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하던 아름다운 관습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40대의 부부가 60대의 양친과 80대의 조부모를 부양하고 또한 부모가 한 아이만 낳았기 때문에 처가 쪽 노년층까지 보살펴드려야만 한다면 누

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겠는가? 거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해야 될 노년층이 너무 비대해진다면 젊은 층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제2의 고려장(高麗葬) 발생 우려

그렇게 될 때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적대시하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예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제2의 고려장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이미 노인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적 지위까지도 젊은 세대에게 이양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끝까지 자신이 관리하고자 할 것이며 그러면 점점 노인집단은 젊은 세대와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먼 미래가 아닌 조만간 닥쳐올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앞으로 사람의 평균수명이 85세

가 되고 그 결과 퇴임 후 대부분의 사람은 평균 30년 이상을 살게 된다. 이는 적당히 소일하면서 살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다.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 결실을 맺기에도 충분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인이 되는 사람들은 정신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퇴임 후에 인생을 의기소침하거나 고독 속에서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로 즐거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하고 싶었으나 제쳐놓았던 일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에 그러나 너무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탐여들어야 한다.

설령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위한 직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좋고 국가에 이로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성숙한 마음에서 해야 한다.

청춘이란 시간을 기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기준 하는 것

이다. 이는 결코 나이가 젊은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무엘 올멘의 <청춘>이라는 시처럼 강인한 의지, 미래에 대한 꿈, 불타는 정열, 겁내지 않는 자신감,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등 이런 마음의 상태를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월을 거둬들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을 때 비로소 늙게된다. 세월이 흐르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나 정열을 잃을 때 정신이 시드는 것이다. 노인이란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노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노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황혼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이며, 노인이란 스스로 만드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아무리 노인들이 자신 있고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거나 사회에 봉사하려고 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노인의 의욕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노년층이 이제 사회 전 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청·장년 층과 대등해진다면 기존의 노년관을 바꾸어

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노인이 모든 중요한 위치를 독점하고 또한 거꾸로 노인은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젊은 세대에 의존하는 신세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새로운 제3의 노인관을 창출해야 한다. 그것은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존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길이다.

멋진 노년 향유할 수 있는 준비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나이 정년이라든가 노동의 분담을 전면적으로 재고하여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과 노동 분담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있듯이 세대간의 역할과 노동의 분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연령을 초월해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하고 그것이 또한 젊은이들의 기회와 출세를 막은 질곡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각각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러한 보장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늘어나는 수명 연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노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는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노년층들이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이웃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교 교육의 위기를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언어와 정보기술로 무장한 채 노트북을 옆에 끼고 전 세계를 누비는 새로운 유목민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능력 있는 인재가 곧 그 나라의 자원이며 국력인데 인재양성의 핵심기관인 학교 교육은 현재 정보화, 세계화, 지식기반 사회를 철저히 대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고민해 보자.

수업의 운영과 방법의 문제, 교사와 학생간의 지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지식과 정보 전달 기능의 약화,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의사소통의 괴리, 인성교육의 부재, 교원들의 사기저하 등 학교 교육의 위기는 더 복잡하고 구조적 원인과 맞물려 있다.

첫째로, 학교가 사회나 국가가 요구하는 효용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사회 후에 도래한 지식기반사회는 뛰어난 개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요구한다. 이런 필요성은 종래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잘 훈련된 인간을 길러내는데 익숙했던 대중교육체제의 존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이제 학교는 다양성, 창의성, 수월성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 정보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학교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인터넷은 종래의 학교를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원천으로 등장하였고, 나아가 지식의 생산과 유통, 개인간의 획기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지식의

전수를 핵심으로 하는 종래의 학교 교육의 기능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제 단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학교교육은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가 지식의 전수 기능보다는 지식의 생성 과정이나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곧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 학교가 당면한 정체성의 위기이다.

그 동안 학교 교육은 수백 년 동안 금과옥조처럼 제공하던 교과지식과는 다른 새로운 지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음으로서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독보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배우나 다 배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가 새로운 지식의 원천이며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

인터넷이나 방송매체들이 학교보다 훨씬 다양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가 용이해졌으며, 때로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이 더 유용할 때도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학교가 배타적으로 부여하던 자격증의 힘이 약화되고 대안적인 교육 형태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은 지식전달자로서의 전통적인 교사의 권위 추락

이다. 이제 학교 안의 교사는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교사들과 경쟁해야 한다.

셋째로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의 필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중등학교 학생들은 교육방송이나 입시학원에서 제공하는 학습 등을 더 선호함에 따라 학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며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는 공부하며, 학교는 지각해도 학원 수업은 개근하는 기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제 부형이나 학생들은 점점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더우기 학교보다 학교 밖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전통적인 학교의 틀을 고수하는 것만을 학교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의 틀을 벗어나더라도 생생한 가르침과 학습이 일어나는 곳을 학교라고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계는 학교 교육을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대학입시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 모순적인 요구를 학교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니 인간교육을 강화하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목표나 교육과정은 아무

래도 좋으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명문대학에 우리 아이를 넣어달라고 아우성이다. 일류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고 사람대접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학생도, 어느 부모도 입시라는 사회적 굴레와 족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소위 좋은 학벌이 장차 출세와 직장이 보장된다는 생각이 신앙처럼 굳어져 있는 사회풍토 속에서 학부형들은 모두 내 자식만은 좋은 대학에 넣겠다는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다.

이제 학교 교육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게 된다. 우리 모두 함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찾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교사와 지역사회가 자부심을 느끼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첫째, 기업이나 국가의 요구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까지 고려하여 무엇이 학교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편성하여 가르칠 것인가에 관하여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목표는 평균적인 인간 교육이 아니라 독창적, 창의적 인간 양성에 두어야 하고 교육방법은 교사중심 지식전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형 탐구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평가는 단편적 암기식지필평가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변해야 하겠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후진성 인 사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사법, 행정 시험과 같은 암기위주의 선발제도를 대담하게 폐지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도입

하고 있는 능력과 기능위주의 다양한 선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단위 학교장의 몫을 인정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각급 학교가 독자적인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단위는 학교에 두어야 하며 여타의 교육행정 기능은 일선학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상·하 기관간의 권한 배분은 위임이나 위탁보다는 '이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가급적 상급기관은 큰 기본만 제시하고 단위학교에 대한 세부적이고 획일적인 행정지시와 보고를 극소화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재량에 의한 결정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학교 나름의 교육방침을 정해 모든 교과 과정을 수요자중심으로 특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자율화되면 책임도 또한 막중해진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은 합의로 만들어진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자율권의 확대가 오히려 학교경영의 지나친 편협주의, 무질서 등의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농어촌 초등학교 교사의 부족현상의 해결이다. 우선 한시(限時)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자에게 초등교과지도 방법론을 집중으로 교육시켜 투입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각 지도에 교사 수급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교육대학 입학당시 교육감과 교육대학 총장이 협의하여 일정비율을 한지(限地)적 조건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되 이렇게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5년 이상 그 지역에서 근무하되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자격증을 박탈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끝으로, 체험학습을 중시하고 강화하여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자치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협동을, 적응활동을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와 친교를, 제발활동을 통하여 개성신장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행사활동을 통하여 연대의식과 심신의 조화를 각각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학습, 노작학습, 문화체험,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등을 늘려 학생들이 개성과 취미를 살리고 전인적인 인격을 연마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도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시멘트 문화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자연의 필요움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과 공한지를 자연 친화적으로 가꾸어야 한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고 가을에는 자연이 주는 풍요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감, 대추, 석류, 은행, 호도 등 유실수를 많이 심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계기가 되며 즐거운 교육환경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이나 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특기나 직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요체인 것이다.



향교를 전통문화 교육의 장으로 되살리자

과거 우리 사회에는 누가 보아도 명분이 있었던 "어른"들이 있었다. 그 어른의 존재는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도 탕탕한 권위로서 우리 앞에 군림하였고, 무조건 인정되었으며 또 실제 그것을 넘볼 사람들도 없었다.

어른의 한마디 말씀과 행동은 그 대로 법이었고, 그 권위가 도전받지 않았던 것은 그 어른이 평생 동안 보여준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였다. 무슨 법적 조치나 사회적 제도가 그것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고 느껴서 인정하고 따랐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런 과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을 향교에서 되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고려시대 이후 서울에는 성균관이 설치되고, 각 고을에는 향교가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성균관은 국립 대학교이고, 향교는 공립 중등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향교는 고을마다 하나씩 설립했으니 조선시대에 36개 고을이 있었던 우리 충청도에 36개 향교가 남아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향교... 어른들의 집합소

향교는 조선시대에 지방교육과 사회교육의 보루로써 도덕과 실천, 지성과 문화인들의 집합처였다. 흔히 향교는 공자님을 제사하는 곳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정작 향교에 출입하는 어른들도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

그러나 향교는 그 사회의 대표적 지성들이 모여서 정치, 사회와 문화, 윤리, 교육 등을 논하고 그것을 후학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던 명실상부한 종합기능을 가진 '어른들의 집합소'였었다고 한다. 과거의 향교가 단순히 경서와 글짓기를 가르쳐 자제들을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한 학원이었다거나, 공자님을 모시는 제사 기능만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향교는 오늘날 문화재로 지정되어 각 지방 중심의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고풍을 지닌 채 고고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 향교를 지키는 유림들은 과거로 치면 지성인이자 도덕적으로도 귀감이 될 실력자들이다. 그런가하면 향교건물은 어느 전통건축

보다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여기에 더하여 상징적인 문화와 교육의 전당이었으니 이 같은 향교시설을 본래의 기능을 고려하면서 현대에 맞게 문화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향교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에게 제향을 드리는데, 이를 석전제라고 한다. 오늘날의 석전제는 연로한 유림인사들이 참여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외면으로 인해 머지않아 그 명맥이 이어지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새로운 측면에서 시대에 맞는 윤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몇 사람들만의 행사를 고집한다면 은퇴한 '노년층'만의 제한된 모임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이제 석전제에서 경건함과 엄숙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와 축제적 요소의 가미를 통해 젊은층이나 여성, 청소년들의 참여를 조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교의례의 경건함은 청소년층의 감각적인 성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옛 한문만으로된 의례

문서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면 한문교육의 교재가 될 수도 있다.

충효교실만이 아니라, 전통시대의 성년식인 관·계례 행사를 개발하여 향교의 뜰이나 명륜당에서 실시하고, 전통 혼례 및 수연도 향교의 명륜당을 활용하며, 백일장 행사도 재현하여 지역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향교건물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례가 끝난 후에 모든 참여자들이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마당은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이다. 뒷풀이 때 가무를 곁들인 음주례 등을 실시하여 축제 마당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도덕적·정신적 중심지로 정착해야

향교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현대인들의 공간으로 되살아야 한다.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도시민에게 절제된 공간구성과 전통적 배치와 잘 어울려진 조경은 누구나 가서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곳으로 느껴진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산사(山寺)를 찾는 마당에, 도시 가까이 있는 향교는 더욱 매력적인 체험의 대상일 수 있다. 이제 제한된 사람만이 일년에 몇 번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가까이 일반에게 문을 열어보자.

지역의 대학이나 교육청에서도 향교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향교를 드나들며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할 때 향교는 박제화된 공간에서 살아 숨쉬는 현대의 문화공간으로 되살려질 것이고, 이는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도덕적 정신적 중심지로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교자원과의 연계 개발, 그리고 옛 선비의 정신사적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차별성을 갖는다고 본다. 외국인조차 유학사상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있는 문화자원이다.

아울러 향교가 그런 기능을 다하게 되면 옛 문화와 정신이 되살아나면서 '어른들이 큰 웃음 짓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